













시 초

농 장 도 시 선 경 가

그리움의 대지에서

아, 장천별!
우리 수령님들 류달리도 깊은 정
두고 사신 이 땅에
농장도시가 태어난 소식 들으신다면
이제라도 문득 오실것만 같아라

찬바람 불던 반세기전 그 저녁
처녀농장원의 손에 쥐어진
그 가벼운 빈봉투를
한평생 마음에 부끄럼에 안고 사신
우리 수령님들

오늘은
희한하게 펼쳐진 농장도시를
한숨에 안으시고
고향집드락처럼 찾았으셨던
사연도 많은 마을길 들길
기쁨속에 걸으실것

저 절절한 청석길을 지나
궁궐같은 세월에 들리시어
잡들이경사도 함께 나누시리
사시절 푸르신남 남새향기에
평생시름이 다 풀린다고 환하게 웃으시리

사무처 사무처오는 수령님들 생각
오늘의 전변을 어서 아뢰어지고
우리 원수님 숙연히 더듬으시던 저 하
늘가
그리운 수령님들을
묵으며 부르는 장천별이여

천지개벽 과학원도

한쪽의 아름다운 명화관가
몽계몽계
흰구름이 피어났듯
궁궐시온실바다 아득히 거느리고
두동술 솟아난 농장도시 별천지여

이 아니 그림이라
휴양각처럼 호화로운 아파트들
울긋불긋 지방마다
태양발전지판 태양열물가열기
문명을 자랑하며 틀지게도 않은 모양

꿈같은 이 무아경
정말로 꿈이야 아닐테지
아니아니 하면서도
걸으면 걸수록 더더욱 꿈만 같아
변화한 도시의 네거리를 걷는가 하였더니

푸른 들 지나며 울려오는
프락프락발소리
하늘중천 종달새의 지저귌소리
내 지금 농장도시 한복판에 서있음을
깨닫게 하여주네

향촌의 정사와
도시의 문명을 다 안은
아름다운 농장도시여
불어부는 들바람에
진드러진 풍년가도 흥그럽게 울려올듯

보름달같은 모습으로
장천원을 나서는
농장도시의 별나라 선녀들인가

온실바다 사랑의 바다

취환이진 냉골마다 탐스런 금빛참외
한결을 읊기엔 푸르신성 오이바다
또 한이랑 남어서면 주렁주렁 도마도
걸을수록 장판인 온실의 바다

탐스런 열매의 향기에 취해
발걸음 쉬어 못 매는가

아침노을 비껴안은 농장도시 창문들도
금수산하늘가를 향해 열려있는가
가없는 온실바다도
그리움의 그 기슭으로 물결쳐가는가

안고 가다오
우리 수령님들의 정이 어린
장천별의 바람결이
이항마다 푸르른 남새향기
함스럽게 부끄럼은 열매의 향기를
금수산기슭으로 안고 가다오

올려가다오
건뭇 들린 추녀아베
밤가는줄 모르는 즐거운 웃음소리
사회주의농촌의 문명을 누리려는
북편 주인공들의 노래소리
금수산하늘가로 올려가다오

이 나라 들길에 뿌리신 애국의 땅방울
수령님들 바쳐오신 헌신의 그 천만날을
아름다운 농장도시의
오늘에도 이어놓으신 우리 원수님
그 손길에 받들려 솟아난
로동당시대의 황홀한 일만경야

아, 그리움이 파도치는 대지
수령님들의 넘친 꽃핀
멋쟁이농장도시에
눈부신 태양의 미소가
해빛으로 넘쳐라

새 집 들 이 밤

가르동 눈부신 저녁이면
《원격대학》 가는 젊은이들 노래소리
걸구나

장천밖 좌상로인
이 고마움에 눈물도 글썽
땅도 개벽 사람도 개벽이라
아무런 농사일이 천하지대본이면
우리네 농장도시는 천하제일타락인지

선경의 이 별천지는
한해사이 펼쳐졌건만
눈부신 이 황홀경 그림에 다 담자면
일백자루 붓을 들어
십년세월 그린들 어이 그 그림소냐

세기를 주름잡는 원수님 자옥파라
바다 가면 천도개벽
들어 가면 천지개벽
남마다 가는 곳마다
천년의 새 절경이 펼쳐지는 이 강산

사파항기 바다항기 넘치는 이 땅에
남새향기 더해주며
사회주의대지위에
문명의 빛발 휘부리는 농촌도시여
너는 수수백년 꿈꾸었던 리상의 도시

아, 우리 원수님
천지개벽의 거대한 붓을 들어
이 장천별에 펼쳐놓으신
농장도시 아름다운 절경화
무릉도원의 탁연도여라

리 상 식

희한한 이 절경 가슴에 안으려니
물결 찌어드는 뜨거움이어

푸른 일색 한껏 펼친
그 어느 이랑에 새겨져있느냐
6월의 불뿔이 내려조이는 이 온실에서
팔로 웃기를 다 적시시며

원수님 찍어가신 그 자옥자옥

그 어느 포전에 이르렀느냐
불수룩 호젓한 남새풍경에
무더위도 잊으시고
선들바람 불어오는 풍년들길 걸으시듯
열매바다 안복의 바다가 여기 파도치나니

목메이노라
천만사실들의 식탁우에
사철 신선한 남새를 놓아주시리
그리도 마음쓰시는
어머이의 그 정앞에 목메이노라
오직 인민의 행복 그 하나밖에 모르시는

새 집 들 이 밤

휘영청 밝은 달도
창가에 내려앉아 못 떠나는 밤
입사중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보고 또 보며
잠 못 드는 새집들이 밤

꿈인듯 생시인듯
그릇세간 그흔한 부엌에선
태양열로 더웁힌 물에
두손을 대어보며 달달도 샅샅다
생긱이 웃는 인체의 모습

깊어지는 밤과 함께
깊어지는 생각
농민 우리보다
나리위해 더 큰일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던가

우주를 정복한 과학자들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인 체육인들...
정령 이 보금자리가

엄 마 의 제 일 자 랑

창천거리 유치원이 옮겨왔다 했어요
그림같은 꽃동산 우리 장천땅
불수룩 희한한 이 유치원에서
다섯살 아들이자 자란답니다

꿈같이 솟아난 아이들의 새 궁전
특수한 고무 깔판이 펼쳐진 놀이마
당에
팬히 넘어져도 보고 덩굴어도 보는
아들애의 모습 웃음도 절로 나오

해종일 개울가에서 물장구치던
우리 집 장난꾸러기
유치원의 물놀이장에서 마음껏 뛰노니
도시아이들 부러지 않아요

놀이감 가득한 지능놀이방
울긋불긋 꽃집대 따스한 요람은

부 부 대 학 생

사시절 온실에서
알찬 열매 무르익히며
사랑의 인연을 맺고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룬
장천땅의 신혼부부

포전을 가꿀 때엔
살뜰한 원양새부부
농장에 새로 솟은 《원격대학》
교정의 책상에 나란히 앉으면
다정한 동창생

온실포전의 이랑을 먼저가듯
컴퓨터화면을 펼쳐가며
팔로 웃기를 다 적시시며

불같은 그 헌신에 목메이노라

그 로고의 땅방울이
알알이 맺히어
무겁게 드리운 행복의 열매
저 하늘의 햇빛은 무르익힐수 없는
열매바다 안복의 바다가 여기 파도치나니

아, 희한한 온실바다 이 절경
땅우에 펼쳐졌더니
기슭이 없는 인민사랑의 바다우에 떠
실려
사시절엔 설매일 푸른 가을이
은 나라에 물결쳐가는구나

김 촌 길

한뼉 밭을 갈고 곡식을 가루는
우리 농민들의 집이란 달인가

사람의 금방석우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이밤도
전선길 가고가실 원수님 생각에
목메이는 이 마음

땅우엔 계절이 있어
있는 지고 눈에 볼허도
사시절 푸르른 온실바다에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무르익혀
고마운 원수님께 기쁨드릴 한 생각

저 하늘의 둥근달도
축복의 빛발을 뿌려주는 이밤
창문을 여니
하늘같은 그 은덕에 보답하라고
땅이 나를 부르네
별들이 나를 부르네

박 정 철

고운 꿈 나라려는
별나라 달나라

온실마다엔 탐스런 열매가 주렁주렁
유치원엔 아이들 능글놀이 방실방실
인고개를 넘긴 분조장이머니도
떡들같은 아들을 또 낳고싶대요

이 황홀한 농장도시에
새 집자랑 온실자랑 많고많아도
엄마들의 제일자랑은
아이들의 궁전자랑

아이들이 이 세상 제일 큰 기쁨이요
제일 큰 행복인 우리 엄마들
고마운 원수님께
남마다 행복을 아뢰이며 산답니다
남마다 큰절을 드린답니다

방 명 혁
남새농사의 대풍을 마중가는
그 모습 불수룩 미더우구나

낮에는 만복의 열매 가꿔가고
밤에는 탐구의 열매 익혀가는 부부대
학생
호미와 낫을 들었던 농민의 손에
오늘은 컴퓨터마우스를 쥐고
과학농사의 대문을 열어가거니

아, 장천도시의
《과학기술전당》이라 부르는
《원격대학》의 부부대학생
태일한 소문난
남새박사부부가 펼쳐라네

우리는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
가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
가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장천별의 《대극장》

당실하게 솟아난
문화회관무대에서
농장의 퍼플새로 소문난
혁신자 분회가 노래부르니
마치도 예술단 명배우같대

온실남새풍년자랑 하도 많아
부르는 노래소리 저리도 고울가
그 옛날 지주집자리에 솟아난
궁궐같은 《극장》이 하도 좋아서
우리는 노래 이리도 흥에 겨운가

화려한 조명속에 멋들어진게 손공금
타는
저 새아가가 우리 집 머느리라
자랑많은 살구나무질 할아버지
객석에 앉아 웃음도 베풀

《처녀관리의 위원장》

아름다운 농장도시 한복판에
넉넉한 웃음은
쏟아지는 해살아베
하늘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단말머리 처녀시절에
농장살림 말아안은것이 대견하시여
우리 수령님
《처녀관리위원장》이라
장을 담아 불러주시던 장천별의 처녀

현지지도의 먼길을
가실 때에도 들리시고
오실 때에도 들리시며
마음속에 언제나 안고 사신
이 땅 이 들길

50여년 긴긴세월
사시절 말에 삼머 들을 가꿔온 처녀
그의 앞가슴엔
수령님 달아주신 영웅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인봉투농장》이야기

장 천 별 삼 천 리

농장도시 새 절경
희한한 온실바다 보고싶어
천리 먼 동봉에서라도 왔구나
벌농사에서 풍장준 불렀다는
미곡에서도 왔구나

전망대에 올라
그림같은 선경을 한가슴에 안아보며
이 별천지를 총체로 떠안고 가고싶
다는
신앙당의 관리위원장
연백별의 기사장

추구나
그 마음, 그 욕심!
장천별의것이이라면
집집의 창가에 피는 웃음도
구슬을 휘부리는 장천원의 물보라도
코스모스꽃잎을 흔드는 바람결조차
자기 고장에 다 옮겨놓고싶다누나

가슴흐뭇이 어려우나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이 농장도시에서
조국방 방방곡곡
해살처럼 퍼져가는 눈부신 문명이

7월 19일부터 새벽을 확장
하고있는 북서태평양고기잡의
변두리를 따라 우리 나라로 덮
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대
부분 지방에서 무더위가 시작되
고 20일에는 서해안의 중부이
남지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약
한 비가 내리는 등 장마이행기
의 날씨특징이 뚜렷해지고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동해의 명승 마천유원지가 시대
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
게 보다 훌륭히 꾸려져 운영을
시작하였다.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
에서도 주제102(2013)년 5월
마천해수유장을 찾으신 경애하
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해수유장
을 건설하시어 관광사업의 유
기외장제 등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진척시키셨다.

건설장에 내내 천 수령의 유
혼관철정, 당정책을위정치의
불
김씨에 정각과 200식, 500식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
고 도에서는 유원지개건에 필
요한 자재, 설비들을 자체로 해
결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달
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대동정기사업
의 화백을 집중함으로써 수령
의 세멘트와 백수십의 강재,
유기외장제를 비롯한 건설자재
들을 제때에 보장하고 방대한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건전건설자들은 어려운 건설
대상들을 타고있어 단층에의 공

경정신으로 불이 번쩍 나게 해
제함으로써 혁명군대의 기철한
본래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유원지에서 7, 8월해양체육
월간모임이 진행되었다.

지금 이곳에서는 경치좋은 바
다가에 펼쳐진 해수유장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
의 기쁨과 향연의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고있다.

김진주
사시절 푸른 열매 가루는 그 보람
사시절 풍년열매 따들이는 그 기쁨
열두발상모춤에 실어볼가
저 넓은 무대에 가극으로 펼쳐서
전국노래경연에서도 1등은 문제없이

아무런 노래경연뿐이겠나
우리네 장천별에 깃든
뜨거운 어머니사랑
저 넓은 무대에 가극으로 펼쳐서
도시사랑 모두 불러 보여주세요

아, 누구나 사랑담아 부르는
장천별의 《대극장》
행복이 끝이 없어
노래도 끝이 없는
노래속의 농장도시라네

리 연 희

새월속에 새겨진
가슴아픈 그 사연 헌신도 못 잊으신
우리 원수님
세상이 부럼도둑 펼쳐추신 이 농장도시

한사랑토 밝고 산 이 땅이건만
너무도 눈부신 황홀함에
제나이를 잊은듯
은빛물보라 무지개를 그리는 물놀이장
에선
명랑한 아이들과 어울려
웃자락 짓는꿈도 모른다누나

약동하는 청춘의 대지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것인까
원수님 은정속에
농장도시의 첫 관리위원장으로 태어나
젊음에 넘쳐있는 처녀의 모습

너넨은 있습니다
사시절 푸른 온실바다 싱싱한 열매들
멋들어진 농장도시 번쩍이는 창문들
저도 물에 처녀시절 노래도 부르며
너넨이 웃습니다 별이 웃습니다

김남호
북편의 산골농장에서
서해의 간석지밭까지
이 무릉도원 별천지에
한차마 한드름을 이어
온 나라는 그대로 장천별 삼천리

정녕 그날엔
밭은 별마다 금파관경이 설매이고
하늘에 닿을듯 풍년로적거리 우뚝하리
천리라 몇천리라
온실바다 푸른 물결 가없이 일렁이고
인민의 식탁은 날같이 풍성하리

도시와 농촌이 한모습으로
어메 가나 천만복 기쁨이 꽃피어
생활의 노래는 갈수록 흥겨울고
로동당만세소리 하늘땅에 넘치리니

아,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해와
달들에
남마다 위성을 쏘올리듯
수백수천 농장도시를 온 나라에 떠울리
는 땅

원수의 앞살마상 싹פור로 짓궂게며
가슴번쩍 태일에로 우리를 부르는 땅

넌대와 넌대를 뛰어넘으며
세기와 세기의 문명을 끄당기며
장천별 삼천리가 온 나라에 펼쳐진다
번영하는 김정일시대 무릉도원 삼천리
행복의 삼천리가 이 땅에 파도친다

장 마 가 예 견 된 다

앞으로 23일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산발적인 비와 소나
비가 자주 내리다가 24~
25일경부터는 전반적지방에
서 장마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25~26일에는 서해안의 일부
부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
은 비도 내릴것이 예견된다.

7월 19일부터 새벽을 확장
하고있는 북서태평양고기잡의
변두리를 따라 우리 나라로 덮
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대
부분 지방에서 무더위가 시작되
고 20일에는 서해안의 중부이
남지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약
한 비가 내리는 등 장마이행기
의 날씨특징이 뚜렷해지고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총속에
동해의 명승 마천유원지가 시대
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
게 보다 훌륭히 꾸려져 운영을
시작하였다.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
에서도 주제102(2013)년 5월
마천해수유장을 찾으신 경애하
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해수유장
을 건설하시어 관광사업의 유
기외장제 등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진척시키셨다.

건설장에 내내 천 수령의 유
혼관철정, 당정책을위정치의
불
김씨에 정각과 200식, 500식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
고 도에서는 유원지개건에 필
요한 자재, 설비들을 자체로 해
결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달
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대동정기사업
의 화백을 집중함으로써 수령
의 세멘트와 백수십의 강재,
유기외장제를 비롯한 건설자재
들을 제때에 보장하고 방대한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건전건설자들은 어려운 건설
대상들을 타고있어 단층에의 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핵
협상타결을 우리와 연결시키
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
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
하였다.

최근 이란핵문제를 비롯한 합
의가 이루어진것을 기화로 미국
이 우리의 핵문제에 대해 이리
говор려공하고있다.

지난 14일 미국무성 대변인
은 《북조선의 핵실험문제를
트
외교와 핵군축의 구체적인
단계를 논의할 단계에 들어서제
한다면 그러한 대화에 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였으며 16

우리는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
가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일 미국무성 차관도 이란핵협
의가 추진되어 우리가 고쳐생각
해볼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느니
뉘니 하였다.

이란핵협의를 자주적인 핵합
동원칙을 인정받고 제제를 해제
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이룩한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정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
가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
키기 위한 필수적수단으로서
협상타결을 올려놓을 흥정물
이 아니다.

이란핵협의를 끊임없는 대규
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국
의 도발적인 군사적적대행위,
최대의 핵위협이 항시적으로
가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
키기 위한 필수적수단으로서
협상타결을 올려놓을 흥정물
이 아니다.

이란핵협의를 끊임없는 대규
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국
의 도발적인 군사적적대행위,
최대의 핵위협이 항시적으로
가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
키기 위한 필수적수단으로서
협상타결을 올려놓을 흥정물
이 아니다.

이란핵협의를 끊임없는 대규
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국
의 도발적인 군사적적대행위,
최대의 핵위협이 항시적으로
가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
성설이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북적으로 먼저 핵
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의 어머니들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과의 상봉모임 진행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의 어머니들과 녀
맹일군들, 녀맹원들과의 상봉모
임이 21일 녀성회관에서 진행
되었다.

모임에서는 먼저 김정선 녀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경애하
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과
깊은 관심속에 조국과 인민의 장
한 딸, 불굴의 녀성혁명가들로
자라난 나라의 첫 녀성초음속전
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의 어
머니들을 축하해주고 녀맹원들
이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조금향, 림설의 어머니들은
온 나라 녀성들과 인민들의 축
복속에 훌륭한 딸을 키워낸 어
머니로 떠받들려주며 누구도 크
나니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고보
니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다면

서 자기들의 진정을 버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
행사가 되고싶어하는 딸자식
들의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훌륭한 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
로 키워주시겠다고 그들은 강
조하였다.

그들은 평범한 처녀들을 영웅
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으로 키워 온 세상에 보란듯
이 내세워주시고 그 사랑과 믿음
만도 분에 넘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인사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시는데
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뿐아
니라 이 나라의 모든 아들딸들
을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 영웅

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그들은
토로하였다.

이여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도론자들은 조금향, 림설동무
들이야말로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현적으로
보여준 선군조선 녀성들의 기를
가져다주었다고 하였다.

지난 14일 미국무성 대변인
은 《북조선의 핵실험문제를
트
외교와 핵군축의 구체적인
단계를 논의할 단계에 들어서제
한다면 그러한 대화에 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였으며 16

우리는 명실







